

본지 발행인 다현이에게 100만원 전달

백종만 교사 포천신문 홈페이지에 부탁 청해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포천초등학교 김다현 어린이에게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건 강하게 성징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포천신문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50만원과 포천신문 장재수(동성유니테크 대표) 운영위원의 50만원 기탁으로 100만원의 성금을 정신지체와 언어발달장애 증후가 있는 다현이에게 전달하여 쾌유를 빌었다.

있으며 정신지체와 언어발달장애 증후가 있으나 병원비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다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성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최구필 포천초등학교 교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 다현이에게 전달하겠다"며 "도와주신 성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북면 새마을, '사랑의 김장' 행사

신북면 새마을 남·여 지도자들이 사랑의 김장을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로 나섰다.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신북면협의회(회장 이관희, 부녀회장 왕성효)는 지난 11일 신북면 기지2리 왕성효 부녀회장 자택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김장' 담그어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북면 27개리 경로당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행사는 왕성효 부녀회장의 500여명 텃밭에 심은 배추 1천포기를 이용, 신북면 27개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왕성효 부녀회장은 "신북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해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담그고 있는 만큼 관내 불우이웃에게 골고루 사랑의 김장이 배달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운동 신북면협의회는 3년째 왕성효 부녀회장의 500여명 텃밭에서 봄·가을로 감자와 배추를 번갈아 심어가며 재배된 농작물을 관내 불우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랑의 김장을 담그어 주기에 참여한 새마을운동 신북면협의회 남·녀 지도자들이 김장 김치를 담근후 이웃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무봉리토종순대국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1백만34만2천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

무봉리토종순대국 본점(대표 이희자)은 커피자판기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포천신문사에 지난 10일 1백34만2천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은 포천시 설운동 무봉리토종순대국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웃들이 늘어가는 시대에 무봉리토종순대국 본점에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이 성금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무봉리토종순대국 김은정 실장은 "무봉리토종순대국 회장님의 뜻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봉리토종순대국 본점은 그동안 자판기판매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무봉리토종순대국 본점은 커피자판기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포천신문사 최호열 발행인(우)에게 지난 10일 1백34만2천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선단동, 잇따른 사랑의 이웃돕기 눈길

유유지 경작해 수확한 쌀과 채소 기증



선단동 새마을부녀협의회에서는 김장 40포기를 담가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했다.

포천시 선단동(동장 강병수)에서는 공무원들과 각급 기관·단체가 혼연일체가 돼 2005년도 역점시책 중 하나인 "함께 하는 사회-더불어 사는 선단"을 적극 구현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추위가 더해 가는 늦가을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단체와 기업, 개인들이 적극 나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김장김치와 김장재료, 생필품을 전달하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잇따라, '함께 하는 선단'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간기업체들의 불우이웃돕기운동이 저조한 가운데, 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각급 단체의 다양한 실천수법은 추워진 날씨를 녹이며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선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방목)가 유유지 논 1,000여평과 밭 300여평을 직접 경작해 수확한 쌀 640kg과 배추 200포기, 무 500kg을 저소득층 이웃과 분도마을, 포천시교통장애인협회 등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 선단동 새마을부녀협의회(회장 오은자)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김장배추 100여포기와 A-마트 선단점(점장 조광수)에서 기증받은 김장배추 300여 포기 등 김장 400포기를 담가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전달했고,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함께 연탄 3,000여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동고교회(담임목사 조승환)와 LG전자/하이프라자 선단지점(지점장 이용범)에서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초청해 사랑나눔기행사를 개최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직접 담근 김

활용해 보자.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마음, 반성의 마음, 겸손의 마음, 봉사의 마음, 유순한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매사에 충실하고 싶다. 우리함께 최선을 다 하자구요.

포천자원봉사 파이팅!



박혜자 주부명예지단 포천동지부장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④7

선단동 설운3동 통장 윤봉헌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균형발전 도모

선단동 설운3동은 소흘읍 송우리의 하송우리 사거리를 지나 대진대학교를 못미쳐 국도 43호선에 인접해 단층건물들로 즐비한 상가가 들어서 있어 자칫 오래된 마을이 있을 것이라 고는 생각하기 쉽다.

겉으로 보기에는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발전하고 있는 곳 같지만, 아직은 시골의 인심과 주민들의 넉넉함이 배어있는 설운3동을 찾았다.

설운3동은 솔모루로 불린 원조 마을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솔모루' 또는 '장승우'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 이름은 마을에 소나무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마을이 번치 말고 오래가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을에는 육군 6공병여단과 포천장례예식장이 국도 43호선을 사이로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발전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운3리는 현재 290세대 59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원주민은 40여 가구가 거주하며 이들 중 7명만이 마을에 터전을 일구며 벼농사 내지 벼농사 소작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에는 2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8년여의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일의 공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 2003년부터 설운3동의 대소사를 돌보고 있는 윤봉헌 통장에게 마을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설운3동은 윤봉헌 통장을 중심으로 노인회(회장 박중태), 부녀회(회장 김광희), 상호회(회장 전봉옥), 새마을지도자(최광원) 등이 조직돼 마을을 이끌고 있다.

특히 상호회는 청년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기적으로는 추석전날과 구정전날에 모여, 마을 경조사 발생시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회의 경우 28명이 가입해 있으며, 평소 마을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밖의 특별한 활동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통장은 "노인들의 경우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실정이라 마을로서도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며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설운3동은 연중 5월 8일



윤봉헌 통장 선단동 설운3동

어버이날을 전후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가을철 관광 등을 실시 노인공경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 "지역의 기업들도 노력에 힘입어 포천의 현실을 감안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설운3동이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접한 도로로 인한 교통문제다. 주민이나 학생들이 선단동사무소나 학교 등 학교를 위한 교통 이용을 위해 선단동으로 많은 통행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겪는 문제다.

윤 통장은 "선단동으로 가는 길목에 모퉁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통행에 위험을 느끼다 보니 모퉁이 안길로 몰아서 가게 된다"며 "남의 영입장을 통행한다는 것도 실례가 되지만, 늘어가는 교통량에 대비한 대처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 송우리와 선단동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탄했다.

윤 통장은 "일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 토지가 하송우리로부터 시작되는 마을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군부대가 위치한 군사보호 시설 및 서 씨 친정회 토지 등이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해 실상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루속히 해제해 주민들이 현대화에 걸맞은 경제활동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으...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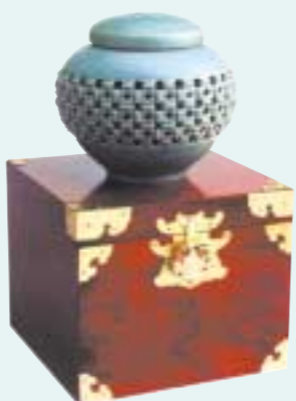


ISO 9001. 인증획득

ISO 14001. 인증획득



꽃샘고려홍삼품세트 홍삼풀 1000g



꽃샘토종고구리1호 토종꿀 2400g
꽃샘토종고구리3호 토종꿀 1200g



꽃샘특선봉밀1호 집화꿀 2200g
꽃샘특선봉밀2호 집화꿀 1700g



꽃샘 1호 아카시아꿀 1200g
잡화 꿀 1200g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꽃샘 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꽃샘 기력세트 2호

영지 꿀 차 1200g
잡화 꿀 1200g